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 아름다운 사람, 모르드개

(에 4:13-17)

모르드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민족적 형편과 노예 신분을 뛰어넘어 유다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 사랑의 사람

모르드개는 죽은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 딸 같이 양육했습니다. 단순히 밥만 먹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지극한 사랑으로 양육하였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 충성의 사람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2:11).

모르드개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앞으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가 맡은 일에 대해 모르드개와 같이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모르드개에게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도 충성을 다해 일했더니 결국은 왕이 높이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 사명의 사람

모르드개는 언제나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는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왕은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므로 하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만의 열 아들을 다 죽여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므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모르드개를 본받아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Wonderful Man, Mordecai

(Esth. 4:13-17)

Mordecai knew what his mission was and did his best to carry it out. He was used to deliver salvation, and a passage of recovery and revival to the Jewish people's situation and slavery.

1. A Man of Love

Mordecai brought up Esther whose father was his deceased uncle as his own daughter. He not only fed her but also taught her the Jewish culture and God's salvation completely. He also educated her with love, and Esther directly took over her uncle's faith and grew up as a wonderful woman of faith.

2. A Man of Loyalty

“Every day he walked back and forth near the courtyard of the harem to find out how Esther was and what was happening to her” (v. 2:11).

Mordecai walked back and forth near the courtyard to find out how she was and what was happening to her by carefully examining how God was working. If we see the man who is used by God, he faithfully performs the work assigned to him to the last just like Mordec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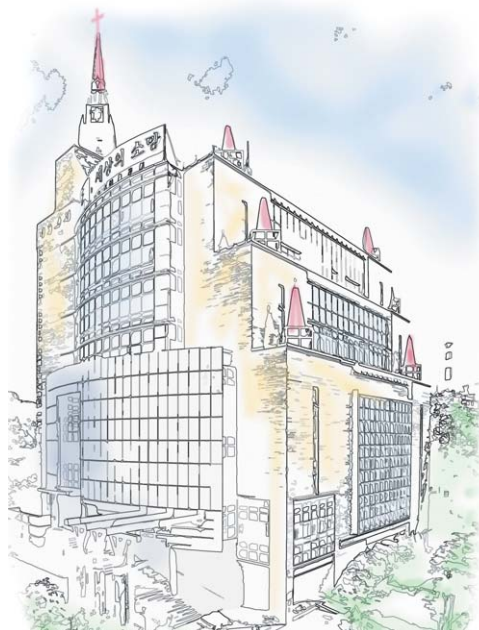
Since Mordecai had been faithful to his deceased uncle's daughter, God gave him a chance to work in the palace. And there, because Mordecai was devoted to working in the palace, Eventually the King elevated Mordecai, giving him a seat of high ranking public office.

3. A Man of Calling

Mordecai never forgot his calling from God. He was a descendant of King Saul. Though King Saul had a chance to destroy the Amalekites, he failed to do it because of his disobedience to God's word. However, because Mordecai completely obeyed God's word, he hanged Haman's ten sons on the gallows, not to speak of Haman. He thoroughly annihilated the Amalekites.

My beloved Christians,

Because Mordecai was loyal to God, and obeyed Him, he was used as a holy tool. By performing the work assigned to us faithfully, and obeying God's word, like Mordecai,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a glorious too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교회 주일 방실사용 부서 및 시간 일부조정

주일 청년1, 2, 3부의 다락방 소그룹모임과 2013년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시행을 위하여 오는 3월 첫 주부터 교회 각 방실사용 부서 및 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다음주일까지 각 방실문에 게시되는 부서 및 시간표에 따라 주일부서모임을 진행하되(변경되는 내용은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임) 다음의 방실사용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 -방실사용원칙-

1. 각 사용부서는 방실문에 게시된 시간표 상의 사용예정시간 종료 5분전까지 모든 부서모임을 미리 마치고 다음부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예정된 사용종료시간에는 반드시 사용방실을 비워 주어야 한다.
2. 다음 부서는 준비 등을 이유로 앞 부서의 모임종료예정시간 이전에 미리 부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자기 부서 사용시간 이후에 입실하도록 하여 앞 부서의 모임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각 사용부서는 다음 부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 모임종료예정시간 이전에 청소 및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다음 방실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4. 미리 게시되지 아니한 교회 각종 모임은 시간표 상 비어 있는 시간에 해당 방실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다른 모임과의 예상치 않은 중복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박노철 목사, 강남구청 감사장 수여받아

우리 교회 박노철牧사는 지난 2월19일(화) 오후3시 대치2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구정보고회'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교회가 대치동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드린데 대해 감사하는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서울교회가 인근 지역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3월4일(월)~5월12일(주) 10주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3월4일(월) 오전10시, 시편반(지도 : 한상은 목사)을 시작으로 5월12일(주)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교회 전체 주일 방실사

용 부서 및 시간 조정에 따라 열린프로그램 중 주일 실시되는 일부 부서의 사용방실 및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시편반	월 오전 10:00-11:0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무엘상 1반	금 오전 6:00-7:00	오세광 목사	602호
구약의 파노라마반	토 오후 8:00-9: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30-12: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렘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701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4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급반(18주간)	주일 오후 12:40-13:40	임규현 목사	609호
중급반(18주간)	주일 오후 12:40-13:40	임규현 목사	603호

## 이미용선교회 감사패 받아

우리교회 이미용선교회(회장:김필임, 윤혜련 전운순 문옥일 김영옥 유복진 김덕순 안혜옥 김미경)가 지난 2월 5일 동명노인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미용선교회는 지난 10년간 매달 첫째주 화요일 동명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미용을 해드리고 있으며 같은 날 한울지역건강센터와 둘째주 화요일은 송파노인복지관에서, 또 격월로 터키근로자를 위해 의정부 열방교회를 방문하여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7]

(문 76) 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려고 심손으로 하여금 이방어인과 로맨스에 빠지게 한 이가 하나님으신가요?

(답) 단 지파 소생으로 출생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레데 섬에서 온 공격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 백성들은 수 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저들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 주전 1,000년경 다윗왕 때까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인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민족구원의 책임감보다 자기 개인적 관심과 쾌락을 좇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가 받은 육신적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위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주신 것인데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그 힘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과 대적하되 그는 자기 개인적 관심을 위한 싸움이나 하는 줄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부모들은 그에게 블레셋 여인들과 교제를 끊을 것을 경고했으나 삼손은 그들의 훈계를 무시했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시려고 그를 격동시키셨습니다(삿 14:4). 이때야말로 새로운 영웅이 출현할만한 때요 웃니엘 에훗기 드온의 날처럼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에게 묶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삼손이 빼앗긴 아내에 대한 분풀이로 블레셋을 대적하는 사인(私人)이 되었던 것입니다(삿 15). 결국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므로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죽게 한 불행한 사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주 계속)

## 나눔의 집 기증품 기다려

봄을 맞이하여 나눔의 집에서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 물품을 기다린다. 나눔의 집은 다음 주 월요일(3월 4일)에 시작하는 43학기 목회자 세미나를 앞두고 지하 3층에 있는 매장을 재정리하며 성도님들이 그 곳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다.





사순절의 기도

# 狂風의 한 가운데서



박노철 목사

주님,  
우리는 광풍(狂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국내외의 경제 몰락,  
가시지 않는 학원 폭력,  
공허한 세상에 활개를 펴는 각종 중독증들,  
심지어 교회의 몰락까지...

주님,  
주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했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오니  
광풍으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광풍이 잦아들고

다시금 고요한 평화가 깃드는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좀 더 가까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 뺨음을 당하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린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사순절에  
광풍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함으로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아멘.

선교보고

## 동아시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영기 장로  
(선교위원장)

21세기 세계선교의 새로운 비전과 선교전략을 세워 효과적인 세계선교를 실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서울교회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장로, 집사 일행 5명은 동아시아 국가 선교지를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방문하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불교 사원이 도처에 자리잡고 있는 이 나라에 이제 막 자라난 새 순과 같은 연약한 기독교 선교의 현장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일행은 우리교회 한 성도의 목적헌금으로 신축된 현지 가정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고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본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7곳의 가정교회 사역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로 하였습니다. 또 현지인 신학교 졸업감사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예비역 군인 특별집회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하고, 우물파기 사역의 현장도 돌아보았습니다.

첫날 전역 군인 제자훈련센터를 방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는 담임목사님의 메시지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정교회들을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 가정교회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도착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없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격려금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파기 2호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현지인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목적헌금 후원으로 현지교회 예배당 헌당예배

를 은혜롭게 드렸고, 이 가정교회 파송 현지 사역자는 인근 불교신자들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지킴으로써 신축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가정교회는 빈민가에서 부모의 무능력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어린이들 23명을 돌보며 복음을 가르치고, 글자와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시편과 마태복음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7곳의 가정교회들은 모두가 열악한 환경이었고 임대하여 목회하는 곳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둘째날 저녁에는 현지 가정교회 원로목사님 초청으로 식사를 하면서 서울교회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이 분의 오랜 노력으로 설립된 71개의 현지 가정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지난 2012년부터 후원이 끊긴 80개의 열악한 현지 가정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용기를 북돋아 드렸습니다.

셋째 날 담임목사님은 전역군인 제자훈련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퇴역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지 신학교 신학생 졸업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있는 신학교에 도착하여 교수 및 신학생들 140여명과 예배를 드리고, 13명의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증서와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며 대제사장의 나라가 된 우리나라는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초대이끌

꿈꾸는  
화세대  
주역들!!



서경학 집사  
(초등부 부장)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초등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2월 25일(월)부터 26일(화)까지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성경탐험활동으로 익히며, 신나는 율동과 찬양, 모두가 어우러지는 공동체훈련, 선생님, 부

모님, 아이들이 함께하는 요셉처럼 꿈을 갖는 아이가 되기 위한 기도회, 함께하는 탐험의 추억만들기, 성경 탐험 끝낸벨 등의 알찬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꿈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화세대 주역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사랑부, 24(주)/교육1국, 25(월)~26(화)

2013 겨울 수련회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사랑부 24일(주), 교육1국(유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이 25일(월)~26일(화)까지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겨울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오유식 박경정(이인보) 누계: 150명 12,500,000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임하람 임하을 임하린 박경정(이인보) 김화정 오유식 한진수 이정수(희경분) 누계: 215명 14,545,000원

비전2020 운동 후원자

정수진, 김진달, 김은태, 12-1 다락방, 12-13 다락방 누계: 개인 312명, 단체 13개, 986 구좌 4,930,000원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5일(월) 한국기독교선업인회 Senior Club모임에서 설교한다. 26일(화) 진위고등학교 교직원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수회에서 특강을 한다. 27일(수) 한국로잔모임에 참석한다.

■ 이강진 장로 2.27-3.3 2014세계기독교인대회 국제 관계자 협의차 영국출장

■ 박사학위 수여: 최문주 집사(3교구) 미술학 박사(홍익대)

■ 주간식당봉사: 모세선교회(2.24) 이삭선교회(3.3)

■ 금주의 식사: 이강진 장로 송미령 권사 가정 김달순 집사 박명진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호산나 학교 감사드립니다



홍순만 장로  
(왕성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1장27절)

우리 둘째 아들은 자폐아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미련하고 약한 아이입니다. 어릴 적 세상

무렵인가 모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근무할 때입니다. 같은 주재원 동료의 집들이에서였습니다. 주재원 선배가 우리 아들의 거드랑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이 녀석 눈을 잘 안 맞추네" 하였습니다.

집사람 휴가차 한국에 갔을 때, 고대 구로병원에서 의사가 "유사자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둘째를 위해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 엄마의 노력과 눈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에서 또는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상한 행동이나 소리를 지를 때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에 박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빨개질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포레 아이들보다 늦기만한 우리 아들에게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희망을 보고 감사하니 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운영하는 호산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하나씩 행동이 교정되고 차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스스로 머리를 깎는 것도 이전 할 수 있고 동네 슈퍼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는 일 등이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둘째도 이전 훌쩍 성년이 되었습니다. 자폐 아들 둔 부모님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식보다 더 오래 살아서 자식의 장애를 극복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둘째 아이의 순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할 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교회를 통해 호산나학교를 설립하게 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온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 번 역사하시어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 및 봉사에 더 큰 도전과 비전을 주실 것을 위해 기도도, 또한 정성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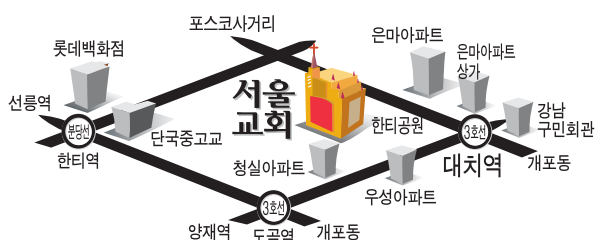


호산나대학의 「사회제 콘서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부 서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 부	오전 11시 20분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 부	오후 2시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젊은이 예 배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오후 7시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4일 주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교육 1국과 사랑부의 겨울 성경학교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 미안마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많은 선교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 의정부 백순미 선교사님이 수술에서 회복하시고, 케냐의 김낙형/오정녀 선교사님을 살생을 서슴치 않는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보호하시도록